=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한일 양국의 아름다운 동행 =

진안군·일본 아야정의 글로벌 상생 파트너십 구축

□ 교류배경

○ 일본 아야정(綾町)은 일본 큐슈(九州)의 미야자키현(宮崎縣) 동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은 95.21㎢로 이중 80%가 산림지역으로 경지면적은 8%**에 지나지 않은 조그마한 시골 도시임

○ 진안군도 **총면적 789㎢중 산림면적 77%,** 용담댐 수몰로 **경지면적도 11%**에 불과하여 **아야정과 매우 유사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음

○ 인구측면을 보면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1958년도 아야정 인구는 12,300여명이나 되었으나 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1970년대에는 인구가 7,000명까지 감소**하여 지역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음

○ 진안군도 **1966년에는 102,539명**이었던 인구가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 용담댐 건설 등으로 **현재 인구는 26,000여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군세가 급격히 약화되었음

○ 또한 **환경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아야정은 조엽수림을 보호하여 유네스코 에코파크로 지정**되었으며 **진안군은 쓰레기 3NO운동(안묻고, 안버리고, 안태우고)과 친환경 우렁이농법,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청정 자연환경을 지켜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어 **두 도시는 매우 닮은 꼴의 농촌 도시임**

○ 이런 **아야정과 인연을 맺게된 계기**는 진안군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그루터기” 회원**들이 진안군과 유사한 자연조건과 지역여건을 가진 **아야정이 어떻게 숲과 마을을 가꿔오고 있는지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자비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시작**

○ 이후 마을만들기분야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여 2011년 11월 일본 아야정에서 우호교류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2017년 현재까지 행정, 주민자치, 복지, 교육, 문화예술, 농산업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

	[진안] 진안군 공무원들 자비로 일본 아야정 벤치마킹 친환경마을 어떻게 만들까 이진경 기자 | desk@jjan.kr / 등록일 : 2006.04.06 / 최종수정 : 2006.04.06 18:17:27 진안군 공무원 19명이 마을만들기 사례연구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4박5일간 자비로 일본 연소를 다녀와 화제가 되고 있다. 3년전부터 공무원의 사고 전환과 참여자치, 분권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의 학습과 토론회를 꾸려온 진안군청내 연구모임 '그루터기(회장 홍의정)'회원들.
그루터기 회원과 고다 미노루 정장	전북일보 보도자료

<진안군과 아야정>

구분	진안군	아야정
인구	26,014명(2017.6. 현재)	7,664명(2014년 기준)
면적	789㎢(산림 77%)	95㎢(산림 80%)
농축산업	71.3% (친환경우렁이농법, 유기농)	25.1% (유기농)
주요산업	친환경농업, 관공업, 서비스업 등	유기농, 수공예, 제조업 등

▢ 시작은 마을만들기 부터

○ 진안군은 농촌의 공동체 문화, 더불어 사는 삶의 문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대한민국 귀농 1번지" 진안을 목표로 20년 가까이 마을만들기 행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진안군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각 마을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마을과 마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8년부터 매년 "마을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음

○ 2009년 **제2회 마을축제에 마에다 미노루(前田穰) 아야정장을 비롯한 공무원, 공민관 관계자, 주민 등 25명이 진안군을 방문**하면서 **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게 됨

○ 이후 2011년까지 6번에 걸쳐 상호 방문하면서 양 지역간의 유사성, 상호보완성 및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2011년 11월 일본 아야정에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게 됨

<table>
<tr><td></td><td>
</td></tr>
<tr><td>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자료</td><td>새전북신문 보도자료</td></tr>
<tr><td>
</td><td>
</td></tr>
<tr><td>우호교류협정체결(1)</td><td>우호교류협정체결(2)</td></tr>
</table>

<마을만들기 교류>

일시	내용
2011. 7.	제4회 진안군 마을축제 “마에다 아야정장 강연” (주제: 아야정의 마을만들기)
2012. 8.	제5회 진안군 마을축제 “마을만들기 학습교류회” (일본약선요리 강연, 진안약선요리 발표 등 약선요리 한일교류 등)
2013. 8.	제6회 진안군 마을축제 “유기농업과 농가공의 한일교류”
2014. 7.	제7회 진안군 마을축제 “일본 아야정의 마을만들기” 특강

□ 아야정의 자치공민관 제도를 벤치마킹하다

○ 아야정은 일본내에서도 지역재생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연간 관광객 수가 150만명에 이르고, 유기농업 인증제도 모델 도시, 쓰레기처리의 선진사례, 조엽수림도시로 일본 제일의 자연생태지역으로 알려져 있음

○ 이렇게 아야정이 지역재생의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치공민관" 운동에 있다고 할 수 있음. 1965년부터 12년 동안 마을 정례회를 조직해 22개의 자치구로 나누고 여기에 **자치공민관을 조직**

○ 각 가정은 물건을 만들어 상품화한 "1품 1호 운동"을 추진하고 매년 문화축제를 열어 판매하여 외부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한평채소밭가꾸기" 운동을 통해 유기농업을 활성화**하는 등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의회, 위원회, 주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조직하는 등 공민관이 행정의 한 축을 구성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진안군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장단협의회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총 4회에 걸쳐 아야정을 벤치마킹**하여 자치공민관이 주축이 되어 유기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한평채소밭가꾸기" 운동을 진안군에 접목하여 "텃밭 채소 가꾸기"를 전개**하는 등 **진안군 친환경농업 정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자치공민관의 주민교육프로그램은 평생학습도시 1호인 진안군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야정은 한국인 이주여성이 강사로 초빙하여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일부는 기초적인 한국말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진안에서는 민간단체인 한일교류협회,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를 중심으로 일본어강좌를 운영하여 민간교류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음

○ 또한 자치공민관의 관(官) 주도가 아닌 민(民) 스스로 행정에 참여하고 자체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에 진정한 주민자치는 무엇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되돌아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봉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됨

	
2015년 주민자치 아야정 연수	아야정 공민관제도 설명

<자치센터와 공민관 제도>

구분	진안군(자치센터)	아야정(공민관)
구성	11개 위원회(읍면별 1개씩)	22개 공민관(마을별 1개씩)
역할	지역문제 토론 등 주민자치 기능 지역 문화여가, 복지 기능 마을만들기 등 사업추진 환경개선사업, 마을활성화 지원 평생교육 등 주민교육 기능	공민관 행사 협의 지역과제에 대한 협의 정책 입안, 집행, 평가 참여 주민교육프로그램운영
임기	2년	2년
운영	행정 보조	주민회비 납부(행정 30% 지원)

□ 아야정 자연생태계농업, 진안 친환경농업

○ **아야정하면 가정 먼저 손꼽는 것이 자연생태계농업**(유기농업)이며 **진안은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우렁이농업 등 친환경농업**이라 할 수 있음

○ 아야정 유기농업은 1973년 “건강하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슬로건으로 1평 채소밭 보급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런 운동 속에서 지력배양에 의한 유기농업이 실천되고 그 잉여 채소의 판매대책으로 주1회 노천시

장 개설로 발전

○ 유기물을 확보하기 위해 1978년 분뇨를 액상발효시킨 자급비료 공급시설, 1981년 가축분뇨처리시설, 1987년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생활폐기물 퇴비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유기농 생산 기반을 정비하면서 소비자, 생산자, 농협, 행정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자연생태계 농업 기반정비를 추진

○ 자연생태계농업에 관한 각종 사업의 추진, 운동을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 유기농업추진회의를 설치하고 유기농업개발센터, 유기농업실천진흥회 등을 설치하고 **1988년 일본 최초의 "자연생태계농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유기농업은 무농약 또는 저농약 재배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량과 품질 측면에서 불안정한 면이 없지 않지만 생협을 통한 판매, 계약재배를 하여 가격 변동이 적어 농가는 경영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그리고 아야정의 독자적인 "농축산물종합가격보증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계약농가의 수익 감소분에 대해 가격 보전을 추진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 이런 **아야정의 독보적인 유기농업과 농촌소득개발을 벤치마킹**하여 진안군에 접목하기 위하여 **농업인단체, 환경농업대학, 유기농업인등 민관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아야정을 방문 또는 연수**를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 마련**

○ **(친환경농업의 시작)** 진안군은 친환경농업이 진안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대안으로 보고 **할머니들의 "텃밭 채소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생산된 텃밭 채소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진안전통시장에 할머니장터를 조성**하여 60여명의 할머니들이 4일과 9일 장날과 주말에 장터에 나와 연간 3억 5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음

○ **(생산기반마련)** 그동안 갖은 농약으로 떨어진 지력 회복을 위해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를 구축운영하여 농가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유기농, 저농약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과 농가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소득 기금"과 "농업경영인육성기금", "농산물유통가격 안정기금"등을 운영**하고 있음. 덧붙여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하

기 위해 **“농림업인 안정공제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기계화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기계사업 순회수리반 운영”**하는 한편 고령의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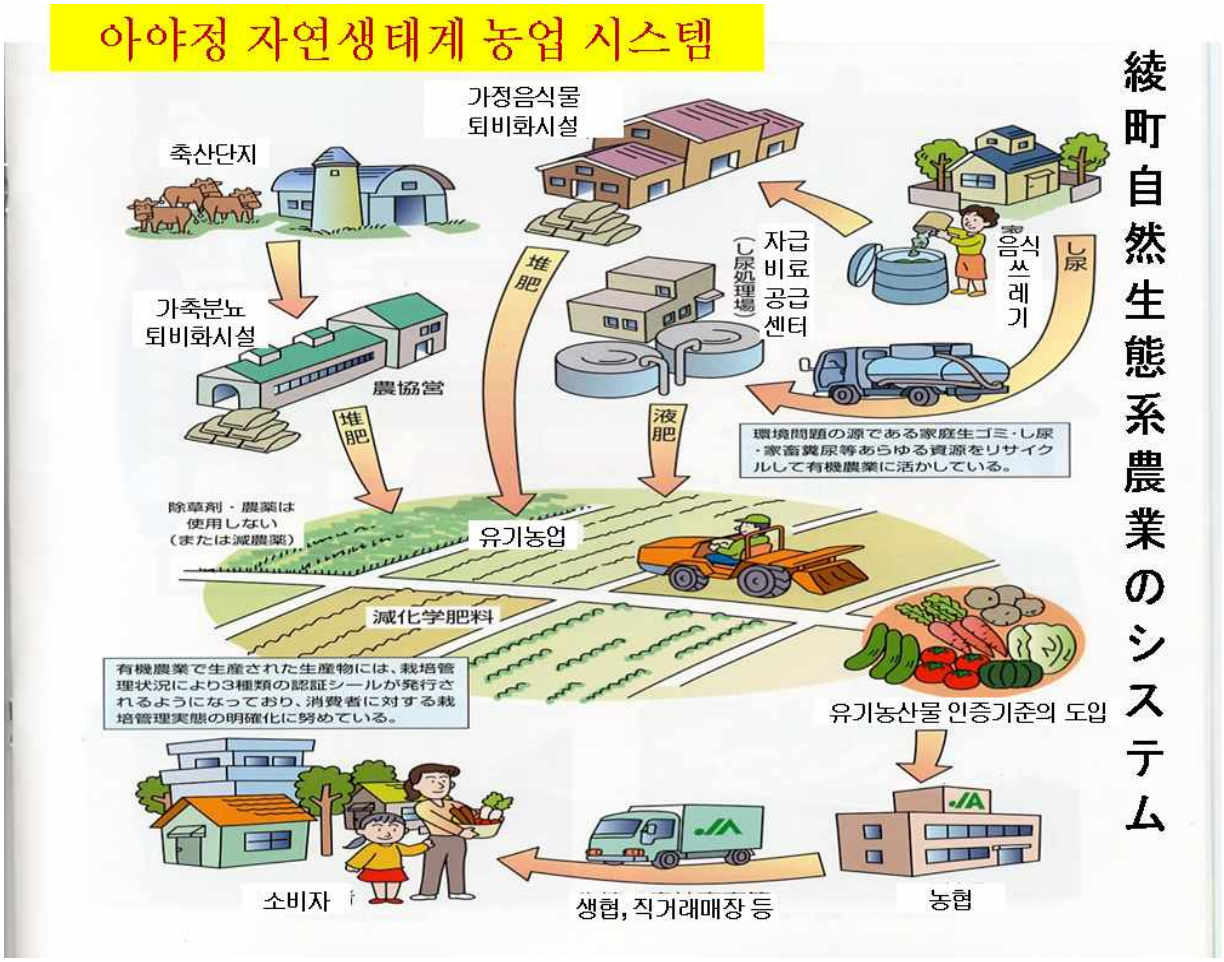
○ **(우렁이 농법)** 또한, **진안은 전북과 충청권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용담호의 수질을 보전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 기존의 제초제, 살충제 등을 활용한 농법은 토질과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어 대안으로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추진하여 벼 재배 면적의 91.3%(1,640ha)를 우렁이 농업으로 벼를 재배**하여 **토양 개선뿐만아니라 용담호 수질을 보전**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유통)** 진안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있음. 또한 지역내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30여개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농특산물, 가공품을 보급**하여 어린이와 학생들이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진안 농산물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 진안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해 나가고 있음

○ **(조례 제정 및 친환경농업인 교육)** 이와 같은 친환경농업의 기반구축과 농가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기농법에 대한 교육과 농업인 육성을 위해 **“진안군 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여 선진 사례 연구활동 및 유기농법 교육 등 친환경농업의 미래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음.

<아야정 유기농업 벤치마킹 및 연수>

횟수	참가인원	내용	연월	참가인원	내용
2010.1.	21명	유기농 연수	2010.11.	13명	농업대학 연수
2010.12.	19명	농업인단체 연수	2011.9.	1명	유기농 연수(3개월)
2011.11	25명	농업인단체 연수	2011.11	24명	유기농 연수
2012.11.	18명	농업인단체 연수	2013.1.	16명	친환경농업 연수
2013.9.	13명	농촌소득개발	2013.12.	5명	산림치유 연수
2014.11.	38명	친환경농업 연수	2016.11.	21명	친환경농업 연수



아야정 자연생태계 농업 시스템



유기농가 방문



아야정 유기농개발센터 브리핑

▢ 청소년 · 문화교류 본격화

○ 2011년 아야정과 우호교류 협정 체결 시 향후 교류방향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류부터 시작하자는 마에다 미노루 아야정장의 제안으로 2012년 아야초등학교 합창단과 교육관계자 29명이 2012년 진안을 방문하여 진안중앙초등학교와 교류행사를 갖고 에코에듀센터, 홍삼한방센터 등 주요 산업시설과 짚신공예 문화체험, 장구, 북 국악기 시연, 솟대 만들기 등 역사문화 체험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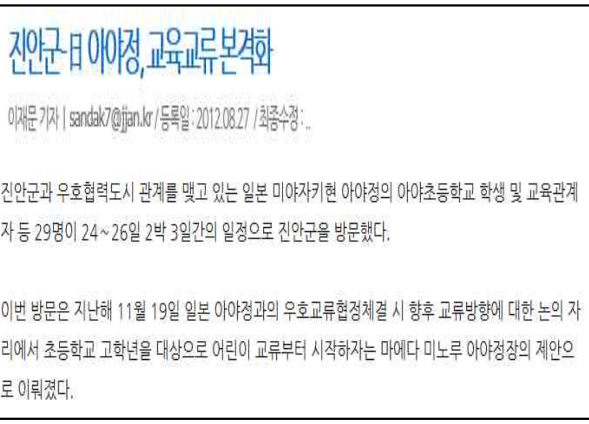
○ 이후, 매년 상호 교류과정에서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6년 8월 성수외궁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등 23명이 아야정의 역사문화 체험, 아야초등학교 수업체험, 공민관에서 어린이 교류를 실시**해 매년 상호 교류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여 **청소년이라는 뿌리부터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를 견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됨



아야초등학교 합창단 진안군 방문



진안 외궁초 학생 아야정 방문



진안군-日 아야정, 교육교류 본격화

이재문 기자 | sandak7@jjan.kr | 등록일 : 2012.08.27 | 최종수정 :

진안군과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미야자키현 아야정의 아야초등학교 학생 및 교육관계자 등 29명이 24~26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안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19일 일본 아야정과의 우호교류협정체결 시 향후 교류방향에 대한 논의 자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류부터 시작하자는 마에다 미노루 아야정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아야초등학교 합창단 진안군 방문 보도자료



지방자치 진안 | 진안군-아야정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활발

김맑음 기자 | bhaum2730@naver.com

승인 2016.08.31 10:52:18

진안군 외궁초등학교(진안군 성수면 소재)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24명은 지난 26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아야정 청소년과 역사문화교류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는 2011년 진안군과 아야정(일본 미야자키현)이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어져온 상호 방문 및 교류를 청소년분야로 확대한 것으로 격년으로 방문과 초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외궁초 학생 아야정 방문 보도자료

○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진안군 주민으로 구성된 **서각동호회, 천연염색, 도자기, 중평굿 보존회가 2015년 11월 아야공예축제에 정식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축제기간동안 서각 및 천연염색, 도자기 전시, 중평굿 공연등을 펼쳐 **아야정에 우리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민간교류의 초석을 다짐

	
축제 개막식 중평굿 공연 모습	**도자기 및 천연염색 공예품 전시 모습**

□ 진안과 아야정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한일교류협회

○ **한일교류협회**는 진안군과 아야정 사이의 학술, 문화, 예술 특히, 마을만들기의 성공 사례를 학습하고 진안군과의 **다양한 교류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1년 설립한 비영리 단체**

○ 일본어 강좌, 일본 문화 강좌, 일본 방문단 통역 및 안내, 학습 교류회, 진안군 소식지와 아야정 홍보지에 진안군과 아야정의 소식을 전하는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어학 능력 및 국제적 감각을 향상** 시키고 **한일 교류 실무 역강 강화를 통해 새로운 농촌 영역을 개척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음.

○ 특히, 2014년 9월부터 15회에 걸쳐 **진안군 소식지와 아야정 홍보지에 양 도시의 행사, 주요정책, 주민 동향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어** 두 도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 진안군 소식지에 실린 아야정 소식은 진안군 홈페이지(http://www.jinan.go.kr)를 통해 접할 수 있음.



2015년 2월호(아야정장 새해 인사)



2016년 4월호(아야정 순환형 사회 기고)

○ 제3회 진안군 마을축제에서는 **한일교류협회 주관**으로 일본 자치체문제연구소 이케가미 히로미치 교수와, 호보 다케히코 명예교수 등 관계자를 초빙하여 **"주민자치에 기초한 마을만들기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한일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존재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음. 또한,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주민자치 시시템을 비교하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존치와 역할의 중요성, **농촌 자치단체가 주민자치에 기반하여 작지만 강한 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함



진안군, 민간단체 중심 한일심포지엄 개최

박용근 기자 dailyjeonbuk.com

- 일본 아야정 관계자 방문, 주민자치 한일비교 및 일본의 경험 소개

제3회 진안군 마을축제에서는 '주민자치에 기초한 마을만들기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일본 아야정 관계자 초청해 8월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진안군일원에서 진행됐다.

진안군은 마을만들기의 선진도시로 알려진 일본의 아야정과 함께 2006년부터 '마을만들기'를 주제로 상호 방문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일심포지엄 개최 보도자료



한일심포지엄 사진

□ 기타(김치문화, 상공회의소 교류)

○ **양 도시의 민간 경제교류 활성를 위해 아야정의 김치교류단 7명**이 2014년 10월 진안을 방문하여 진안읍 연장리 상평마을에 머물며 배추 손질, 배출 절이기, 양념채소 손질하기등 인삼김치 만들기와 돼지 수유 삶기 등 직

접 **김치를 만드는 체험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부귀농협마이산김치공장을 방문해 김치담그는 전 과정을 견학하는 한편 진안홍삼연구소, 홍삼한방센터 등을 방문하여 진안의 홍삼산업을 견학하고 한일교류협회와 교류회를 갖는 등 **민간차원에서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 증진에 기여**함

○ 또한 **2015년 10월에는 아야정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회원 15명이 진안을 방문**해 진안전통시장과 홍삼한방센터를 견학하고 **진안군수, 진안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통해 **양 도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공회의소의 역할, 양 도시 상공회의소의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산업경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함



아야정 김치교류단 보도자료



김치담그기 체험

☐ 양 도시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농촌 재생을 위한 마을만들기는 마을별 특색 있는 테마, 보물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민자치라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학습교류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양 도시의 공동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농산업 협력)** 진안군의 친환경농업과 아야정의 유기농업은 기반마련과 정착 단계를 넘어 확대생산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양 도시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진안 로컬푸드 판매장과 아야정 혼모노센터에 홍보전시판매장 개설에 대한 협력을 개진하고 홍삼 및 김치산업, 아야정

농산업에 대한 상호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농산업분야 효과 극대화 모색

○ **(청소년 문화교류)**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교류 등을 통해 양 도시의 주민들의 생활문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뿌리부터 친선과 신뢰관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기타)** 양 도시의 공동관심사인 청정자연환경 보전, 유기농(친환경농업), 교육을 비롯한 문화, 역사 등 분야에 대한 교류의 날 행사 개최 등 작지만 강한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가깝지만 먼 이웃나라가 아닌 가깝고도 가까운 양 도시의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교류 지속